

도합 프리즘

'북한 황강댐' 탓에  
임진강이 얕는다



지난달 17일 임진강에서 어선이 채취하는 모습. (사진 파주시어촌계)

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어민들은 군사 문제인 인근 북한 황강댐(총저수량 3억 5000만t)이 지난 1월 댐수문 3개 상 가장 큰 2번 관아와 침중호수 기간 이어진 황강댐의 예고 있는 잇단 방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서다.

어민 김행욱(56·파주시어촌계장) 씨는 요즘 침체할인 때도 한 달가량 정상 조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. 댐수가 모순을 경주대시켜 한 때문이다. 지난 침중호수 당시 임진강 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황강댐 갑자기 수문을 열어 대량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상

제가 강류로 흘러내려 강 계 원간이라 고 지적했다. 이번 예나다. 침중호수 당시 예고 댐수문은 열렸던 지난달 3월 70여만평 하는 0.58 여산 한 척이 마네 라는 피해를 본다. 그는 이후 예나보 다 모퉁사람 들은 지난 15일 예산 한 척 을 빌려 조업을 시작했지만, 예년의 끝 년 이하인 어획량에 실망하고 있다. 김 씨는 "침중호수에 대비해 수면보다 3m 높은 문신을 내포의 선착장 안전차대로 선착을 대비시켜 모퉁로 들어왔는데도 황강댐 방류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선착이 유실됐다"고 했다.

황강댐은 "북한의 물레 등이 7월부 터 지난달 3월까지 사전 공보 없이 황강 댐 수문은 3차례 열며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"고 밝혔다. 경제당국은 지난 달 5일과 17일에도 황강댐이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물은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. 이 기간 임진강엔 주민들이 긴급 대비했으며, 산책 8차 유실 및 임진강 변 주택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 했다. 앞서 2009년 9월 6일엔 황강댐 부 단 방류로 연천 임진강 아랫의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.

2016년 5월 16일과 17일엔 무단 방류 로 파주 임진강 어민 100여 명의 어구가 대부분 떠내려가는 피해도 있었다.

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5일 "황강댐 무단 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"는 성명을 낸 게 고작이다. 성명은 "황강댐 방류 시 어떤 동료 이든 남측,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란다"고 "희망"하는 선에 그쳤다. 물론 북측은 이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시하고 있다.

북한 당국은 남북이 2009년 10월 임

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하고 사전에 댐 방류를 통보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. 무단 방류 는 우리 국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 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다.

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비(非)군사적, 비정치적인 이승만 재난 예방에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. 인도적 차원에서 댐 방류를 우리 측에 사전에 통보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. '우리 민족끼 리'를 외치는 북한의 무성의가 진짜 문 제는 아닐까.



전역진  
사회칼럼기자